

SNS에서 산림청 소식을 만나보세요.

- ▶ youtube.com/forestgokr
- 📷 instagram.com/forest\_korea
- 📘 facebook.com/forestkorea
- 🐦 twitter.com/forest\_news



Magazine 숲

Volume 49 September + October 2022

2022 | Volume 49

산림청



September + October



# FOREST WELLNESS

치유가 있는 숲





숲속에 고작 닷새 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포장도로나 획 지나가는 자동차, 그냥 건물만 보아도 낯설고 맘이 설렌다고 하면 과장이 심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랬다. 나는 애플래치아 트레일 종주의 백미가 상실에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모든 경험이 바로 스스로를 철저히 일상생활의 편리함에서 격리시키는 것, 그래서 가공 처리된 치즈나 사탕 한 봉지에 감읍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흰 빵과 함께 마시는 코카콜라 한 잔에도 나는 마치 처음 보는 음료수인 것처럼 낯이 나갔다.

- 빌 브라이슨 <나를 부르는 숲> 중에서 -

P R O L O G U E

<나를 부르는 숲>은 '세계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여행 작가'로 손꼽히는 빌 브라이슨의 대표작이다. 이 책은 그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메인주까지 총 3,500 킬로미터에 달하는 애플래치아 트레일에 도전한 후 쓴 종주기다. 빌 브라이슨은 불완전한 지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들, 야만적인 날씨 등 그를 수없이 괴롭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연에서 느낀 해방감, 숲속을 걷는 순수한 즐거움에 대해 쓰고 있다.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왜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숲은 인간에게 어떤 편안함과 치유를 제공하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 특히 매일 바쁜 일상, 수많은 관계, 매분 매초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디지털 기기에 지친 사람들이라면 그가 느꼈던 일상의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를 직접 경험해보기 바란다. 숲은 이처럼 광대무변한 존재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친 마음을 안아주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준다. 빌 브라이슨이 그렸던 자연의 사랑을 마주하고 싶다면, 그리고 마침내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느껴보고 싶다면 가까운 산으로라도 잠시 떠났다 오도록 하자. 숲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에 있으니깐 말이다.





# CONTENTS

2022 SEPTEMBER + OCTOBER

04

Prologue

08

숲속 다이어리

일상의 디톡스, 삶을 치유하는 숲

10

숲을 거닐다

맨발로 느끼는 자연의 숨결

– 통영 나폴리농원



16

16

숲을 만나다

가을날에 날아든 월든으로의 초대장

– 작가 정여울

22

숲의 발견

나무를 만지며 마음을 토닥토닥

– 우드카빙 클래스

24

오늘의 숲

억새가 춤추고, 바람은 떠밀고, 구름이 쫓는다

– 신불산(神佛山)

30

어떤 질문

지구온난화로 단풍이 희미해지고 있다?

– 가을단풍, 그것이 알고 싶다



10

32

숲 크리에이터

당신의 일상에 나무가 필요한 순간

– 나무, 예술이 되다\_세레나아트

36

하루의 끝은 산책

바람길 따라 걷는 오후

– 인천 수인선 바람길숲

38

달콤한 숲

가을이 익어갈 즈음 단감의 재발견

– 단감 푸딩 & 단감 양배추 스무디

42

숲의 미래

16개의 페트병이 가방이 되는 기적

– 의식있는 소비를 제안하는 미사이클 브랜드

플리즈마마

46

숲의 내일

우영우의 팽나무는 500살 수령의 산림청 보호수

– 산림청의 보호수 가치 지속사업



24



[www.forest.go.kr](http://www.forest.go.kr)

이번호 〈Magazine 숲〉을

휴대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발행 산림청

기획 산림청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mailto:magazinesup@korea.kr)

T. 042.481.8843

편집 ·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http://www.hongcomm.com)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agazine 숲〉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 일상의 디톡스, 삶을 치유하는 숲



누구나 일상에는 상처가 있게 마련일까요?

별일이 아닌데도, 별말이 아닌데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마음이 먼저 지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일상의 디톡스가 필요한 법이겠지요? 가볍게 입고 가까운 산으로 훌쩍 떠납니다.

숲속을 조금 걷다 보니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 풀어지는 듯합니다.

이렇듯 장대한 자연 앞에 서면 세상사 모든 일이 코웃음 한 번 치면 지나갈 일처럼 작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비로소 푹 털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고 할까요?

조금만 더 걷고 집에 가서 맛있는 것이나 해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몸과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숲은 정말 훌륭한 해결사인 것 같네요.





## 맨발로 느끼는 자연의 숨결

통영 나폴리농원

때로는 도심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

복잡한 사람들과 우거진 빌딩숲을 벗어나 진짜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순간이  
문득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은 숲을 찾는다. 고요하고, 지그시 안아주는 숲의 품을 찾아서.

통영의 나폴리농원은 평온한 숲을 살갗으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자연의 숨결을 우리의 맨발을 통해.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나폴리농원



## 숲인 듯, 정원인 듯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에 위치한 나폴리농원. 1997년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치유정원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곳은, 도심 속에서 자연과의 접점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위해 조성됐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자연을 느끼고 만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곳은, 숲의 아늑함을 통해 현대인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곳곳에 자연의 넉넉함을 배치했다. 현대인들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토피와 비염, 미세먼지로 인한 다양한 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 혹은 한의원 등을 찾으며 치료의 방안을 찾아보지만, 사실 이러한 질환은 대기질의 변화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 깨끗한 자연으로 회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나폴리농원은 아토피와 비염 등의 질환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 대한 하나의 단면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인들의 마음과 그들을 이루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작은 정원을 조성하고자 했고, 농림자원 내 민간정원을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의 일상 안에 숲을 건넌 수 있으리라 생각해 농원을 조성했다. 이름하며 '치유정원'이다.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해준다는 의미의 '치유정원'은 사람의 몸이 숲의 몸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물로, 그것은 지금의 '나폴리농원'이 되었다.

01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쏟아져 나오는 편백숲길을 맨발로 걷는 맨발치유체험이 가장 인기다.



© 정수림  
나폴리농원



2

## 자연과 내가 만나는 시간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프로그램은 단연 '맨발치유체험'이다. 개인 방문객은 물론, 가족과 단체 관광객들 모두 이용 가능한 이 프로그램은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가득 쏟아져 나오는 편백숲길에 편백나무 톱밥을 찌모غن 효소와 함께 자연발효 시켜 갈아놓은 '효소의 길'을 맨발로 걷도록 만든 코스다. 신을 벗고 자연과 내가 온전히 맨살을 맞닿을 수 있는 곳이기에, 맨살로 자연의 에너지와 자연의 효소를 직접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길을 만들기 위해 나폴리농원은 새벽 4시마다 편백숲길에 발효시킨 효소를 매일 새롭게 갈아주고 있다. 편백톱밥과 찌모غن 효소를 발효해 섞어 숲길에 넉넉히 채우는 것으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맨발로 이 톱밥과 효소를 밟으며 몸의 감각을 새롭게 일깨운다. 사람들이 더욱 신선한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도록 치유의숲 맨발체험로는 13~25살의 편백나무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모든 생명체에 전성기가 있듯, 편백나무도 13~25세의 어린 나무일수록 피톤치드가 많이 방출되는

02  
숲의 몸과 사람의 몸이 직접 만나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나폴리농원

03  
누군가 한 명이 웃음을 터트리면 함께 그 웃음을 공유하기도 한다.

만큼 사람들에게 젊은 나무의 건강한 공기를 건네 주기 위해서다.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실 수 있는 곳인 만큼 이곳의 숲길을 걸을 때는 폐를 정화한다는 마음으로 깊고 천천히 호흡을 마시고 내뱉는 게 좋다. 온전히 호흡에 집중하며 걷는 시간 속에 몸 안으로 숲이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 자연이 존재하기 때문일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연에 대한 감탄사를 내뱉는다. 도심 속에서는 느낄 수 없던, 인위적이지 않은 에너지를 만끽하고 가기 때문일 것이다.

## 숲이 내어주는 공기를 몸속에 가득 담아올 때

치유의 숲은 코스 역시 매우 다양하다. 가장 먼저 숲에 들어가기 전에 냉수를 이용해 발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발끝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도록 크나이프 코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피톤치드와 효소를 온 몸에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전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자연을 느끼고  
만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통영 나폴리농원.  
현대인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곳곳에 자연의 넉넉함을 배치했다.



이후 치유의 숲을 걷고 나면 이제는 눈을 통해 숲  
을 관찰하는 시간과 만나게 된다. 루페를 이용해  
바위에 붙은 이끼와 지의류를 관찰하는 '이끼 관찰  
의 길'로, 이끼에서도 매우 강력한 피톤치드가 쏠  
아져 나오는 만큼 아이들에게는 자연에 대한 호기  
심을 충족시켜주고,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  
에게는 건강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다.

몸의 모든 감각으로 숲을 느꼈다면, 이제는 생각  
과 마음으로 숲을 만나는 '명상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  
듯, 숲은 인간이 시작된 곳이자 인간이 돌아갈 곳  
으로 이야기되곤 한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숲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아  
닐까. 나를 보호하는 숲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오직 숲과 나만을 생각하는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풍성히 채워준다. 이외에도  
'피라미드 기 충전소', '음이온길', '잔디밭침대',  
'냉 족욕탕 크나이프 치유코스' 등 다양한 코스를  
통해 방문객은 자연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코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바라보  
고 있노라면, 이들이 일상에서 어떤 치유가 필요  
했는지 어렵잖게나마 가늠하게 된다. 맨발로 숲  
을 거닐 때는 마치 약속이라도 나눈 듯 일순간 조  
용해졌다가, 누군가 한 명이 웃음을 터트리면 함  
께 그 웃음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자연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현대에 사는 우리가 신을 벗고 낮선 곳에 가는 경  
험이 얼마나 있을까. 그 생경한 경험이 이곳 나폴  
리농원에서는 가능하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혈관  
이 있기 때문에 그 감각 역시 매우 예민하다고 한  
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감각을 오랜 시간 동안 두  
꺼운 신발 안에 꽂꽂 가둔 채 살아왔다. 나폴리농  
원에서는 발바닥을 감싸던 모든 도구를 벗게 하  
고, 오직 나의 맨살로 자연을 느끼게 하는 만큼 자  
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 내면의 욕구를 부드럽  
게 건드린다.

때문일까. 이곳을 방문한 어른과 아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마치 오랫동안 돌아  
오지 못한 집에 방문한 듯한 표정을. 숲이 건네는  
치유와 위로, 그리고 맑은 공기를 안고 돌아올 수  
있는 곳. 나폴리농원이다. 🌿



03  
숲이 내어주는 공기를 몸속에  
가득 담으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잔디밭침대.

04  
발바닥을 감싸던 모든 도구를  
벗게 하고 오직 나의 맨살로  
자연을 느끼는 시간

05  
나폴리농원에서는 나를  
보호하는 숲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숲과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





# JUNG YEOUL

SPECIAL INTERVIEW



## 가을날에 날아든 월든으로의 초대장

작가 정여울

정여울은 치유의 작가다. 문학평론을 주로 하다가 자신의 상처를 다독이고자 심리학 공부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아픔을 따스하게 보듬어주는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등의 서적들을 펴내며 이름을 알렸다. 그랬던 그가 2022년 초반, 갑자기 월든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월든으로의 초대장'이라는 부제목이 달린 〈비로소 내 마음의 걱정온도를 찾다〉를 펴냈다. 매일 글을 쓰는 사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저 멀리, 월든 콩코드 숲까지 이끌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정여울 작가가 안내하는 〈월든〉, 그 완벽한 치유에 대해 들어보자.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이승원 작가

### 치유의 작가 정여울

최근 베스트셀러를 장식하고 있는 책들을 보면 치유 에세이가 대세다. 그만큼 삶이 팍팍해졌다는 이야기다. 이중 단연코 눈에 띄는 작가 있으니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나의 어린 왕자〉 등을 쓴 정여울이다. 그가 특별히 세상 속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치유의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시작한 심리학 공부도 나중에는 독자를 위한 선물이 되었지요.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글쓰기가 독자들에게 응원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글쓰기의 방향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2022년 초 펴낸 〈비로소 내 마음의 걱정온도를 찾다〉 또한 이런 치유의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다. 심리학, 인문학을 넘나들며 다양한 책을 출간하고 KBS 제1라디오에서 〈정여울의 도서관〉, 네이버 오디오클럽 ‘월간 정여울’의 진행자를 맡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가 잠시 짬을 내어 월든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출간한 책이다. 정여울은 이 책에서 자신과 〈월든〉이 따스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글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숲과 동물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힘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01  
1845년, 미국의  
초현실주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숲으로  
들어가 통나무집을 직접  
짓고 소박하게 살며  
월든을 펴냈다.

02  
미국 매사추세츠 콩코드에  
그대로 재현해낸 월든  
호숫가 소로의 오두막.  
실제 집터는 따로 있다.

1



2

## 자발적 가난과 자발적 은둔

정여울 작가가 그렇게 영감을 받았다는 〈월든〉은 어떤 책일까? 〈월든〉은 19세기 미국의 저술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대표작이다. 소로는 1845년 2년간에 걸쳐 월든 호숫가 숲속에 들어가 통나무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소박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시도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통찰을 〈월든〉이라는 책에 녹여 냈다. 책을 읽으면 자연 안에서의 단순한 생활, 절대적 자유의 추구, 자연과 더불어 항상 깨어있기 등이 인간에게 주는 지극한 평화를 만날 수 있다. 정여울 작가는 이런 〈월든〉을 많은 분들이 책장에만 꽂아놓고 잘 읽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한다. 〈월든〉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지구와 삶의 소중한 가치의 상징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월든〉에서 소로는 '자발적 가난'과 '자발적 은둔'이 우리에게 창조적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발적 은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타인을 배제하는 고립이 아니라 나의 꿈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집중과 고독이다. 이것은 소로의 저 유명한 문장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의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으며 삶의

빛나는 정수만을 간절히 체험해보고 싶었기 때문' 과도 관통한다.

"저도 긴 글을 쓸 때면 제주도에 가서 한달살이를 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 글쓰기의 시간은 밖에서 볼 때는 '은둔'이지만 사실은 '창조적 고독'의 시간이에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다른 수많은 자극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죠. 산책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혼자서 숲속을 걷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고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소로가 주장하는 '자발적 가난'은 무한경쟁에 내몰리며 과도한 노동과 불필요한 소비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특히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하여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는 생활을 억지로라도 익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정여울 작가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나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같은 실천도 〈월든〉에 가까워지는 길이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로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 에너지난이 심화되고 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이때, 지구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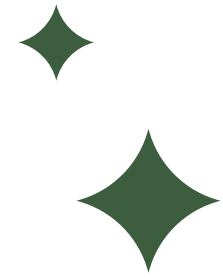


03  
치유의 작가 정여울이 '월든으로의 초대장'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펴낸 에세이, 〈비로소 내 마음의 적정온도를 찾다〉.





4



지구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 일상생활 속 월든을 확장해가기를

〈비로소 내 마음의 걱정온도를 찾다〉에는 ‘월든으로의 초대장’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월든 호수, 콩코드 숲, 소로 거리의 사진도 만날 수 있다. 마치 작가와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든다.

“〈월든〉은 책이라기보다 위대한 현자의 속삭임이 매 순간 눈부시게 빛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월든〉을 읽을 때마다 월든 호수와 숲을 산책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월든을 다녀온 후 제 주변의 자연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도 또 하나의 월든을 가꾸고 싶었어요. 가기 전에는 머니먼 책 속의 이야기였는데 다녀오고 나니 내가 사랑하는 산책길,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나만의 월든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비로소 내 마음의 걱정온도를 찾다〉에는 ‘당신의

월든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이 종종 등장한다. 질문을 던져보았다. 작가님의 월든은 어디인가요? “제주 올레길 7코스를 좋아해요. 힘들 때 올레길을 걸으면 내 마음의 월든을 찾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꼭 한 가지 장소만 나만의 월든이 아니라 엄마가 가꾸고 있는 아주 작은 텃밭도 제가 요즘 키우고 있는 루꼴라와 올리브 화분조차도 저에게는 또 하나의 월든입니다. 식물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저에게는 월든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책과 좋은 음악과 좋은 사람이 있는 모든 곳이 월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렇듯 일상생활 속의 월든을 끝없이 확장해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신간 〈나의 어린 왕자〉를 출간하며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여울 작가. 그에게 작가님만의 숲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하자 〈비로소 내 마음의 걱정온도를 찾다〉 중 한 대목을 보여주었다.

‘홀로 한라산에 올라간 적이 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완주를 하진 못했다. 하지만 다시 것처럼 아름다운 등산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 04

정여울은 현자의 속삭임이 눈부시게 빛나는 월든 호수에 직접 다녀와 생생한 사진 70여 컷을 책에 실었다.

#### 05

좋은 책과 음악, 사람이 함께 하는 모든 곳이 월든이라고 느낀다는 작가 정여울. 그의 꿈은 일상 속 월든을 끝없이 확장해가는 것이다.

참으로 행복했기 때문이다. 한라산에 올라갔을 때 나는 한 번도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락이 오지 않을 때도 휴대폰을 확인하는 이유는 심심하거나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나는 그날 아무런 추가적인 자극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냥 한라산 깊은 골짜기에서 아무 꾸밈없는 내 마음을 만나는 것이 좋았다..(중략).. 그날 한라산은 내게 가르쳐 주었다. 혼자 있으면서도 절망적인 외로움에 빠지지 않을 용기를. 다만 자연 속에 폭 안겨 있는 작은 점 같은 인간이라는 점만으로도 나는 축복받은 존재임을.’

가을로 향하는 길목, 〈월든〉으로 통하는 문은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숲

정여울 작가가 월든 콩코드 숲을 다녀온 후 2022년 출간한 〈비로소 내 마음의 걱정온도를 찾다〉 작가는 이 책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과 따스하게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지구와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5



# 나무를 만지며 마음을 토닥토닥

우드카빙 클래스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조각칼과 사포만 이용해 원목 작품을 만드는 우드카빙 클래스. 나무는 성질이 따뜻한 소재로 만지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서걱서걱 칼로 나무를 밀고 있으면 세상사 잡념이 모두 사라지고 편안하게 몰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가을 나무를 만지며 마음을 토닥이고 싶은 분들께 온라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드카빙 클래스들을 제안해본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 WOODCARVING



1

### 클래스 101, 필드오즈 우드카빙 클래스

온라인 취미 교실을 열고 있는 <클래스 101>이 선보이고 있는 우드카빙 클래스. 나뭇결의 이해부터 도구 사용 방법, 마감 방법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우드카빙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실제로 수강생들의 평도 좋은 편이다. 요리용 젓가락부터 우드 티스푼, 볶음 주걱, 양념 계량스푼까지 만들어볼 수 있다.



2

### 클래스유의 디클루 우드카빙 클래스

32년 차 광고 디자이너이자 우드카빙으로 제2의 직업을 갖게 된 디클루. 그가 운영하는 개인 목공 작업실에서 우드카빙 클래스가 진행된다. 제작 도구를 알아보고 스푼 깎는 법부터 오일 처리하는 법까지 배울 수 있으며 디클루 목공 작업실의 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에도 참여할 수 있다.



## CLASS



3

### idus, 남머루 우드카빙 클래스

idus의 우드카빙 클래스는 우드카빙 작가, 남머루가 진행하는 클래스로 살림 도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 숟가락, 젓가락, 주걱, 작은 접시, 행거 등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살림 도구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수업. 따라만 해도 세상에서 하나뿐인 10가지 나무 살림 도구를 제대로 장만할 수 있을 것이다.



4

### 유튜브 한스아저씨의 찾아가는 목공학교

한스아저씨는 목공에 관련된 콘텐츠로 각종 단체에 비대면 온라인 목공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버다. 목공 초보자가 목공방을 선택하는 기준, 기본적인 수공구와 도구 사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누구나 우드 카빙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원데이 클래스와 찾아가는 목공학교도 진행하고 있고 우드카빙사, 기능사, 교육사 자격증반도 운영하고 있다.

한스아저씨 유튜브로  
우드카빙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 억새가 춤추고, 바람은 떠밀고, 구름이 쫓는다

신불산(神佛山)

그리웠다. 신불재 억새 평원이 목마르게 그리웠다. 신불산 정상의 그 장쾌한 풍광과, 몸을 날려 버릴 듯한 바람과, 거칠 것 없이 사방 탁 트인 하늘이 그리웠다. 더구나 최근 등산객들 사이에 영남알프스가 핫 플레이스로 떠올라 여기저기서 인증 사진들이 눈에 띄니, 머리는 일로 분주해도 마음은 늘 영알 능선의 어느 구름 아래 노닐고 있었다. 그러다 이번 호 산행지가 신불산으로 결정되었으니 이 아니 반가울 수가. 아직은 억새가 절정일 때는 아니지만 그게 무슨 대수랴. 서둘러 짐을 꾸리는데 입은 헤벌어지고 마음은 벌써 신불평원을 달리고 있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신중식





해발 1,159m. 신불산은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산군(山群)에 속하는 산이다. 영남알프스는 울산, 밀양, 양산, 청도, 경주의 접경지에 형성된 해발 1천m 이상 9개 산(가지산, 운문산, 천황산, 재약산,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 고현산, 문복산)의 수려한 산세와 풍광이 마치 유럽의 알프스를 연상케 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특히 영축산-신불산-간월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형성된 광활한 억새 군락지가 가을이면 은빛 물결로 장관을 이루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신불산을 직접 오르려면 동쪽 울주군 상북면에서 시작되는, 이름도 무시무시한 신불 공룡능선을 타야 한다. 아니면 삼남읍 건암사 방면에서 출발하거나 서쪽 신불산자연휴양림 하단에서 출발해 신불재를 거쳐 신불산 정상으로 가는 것이

01 신불산자연휴양림에서 출발해 신불재를 거쳐 15여 분쯤 산행하면 신불산 정상 돌탑을 만날 수 있다.

02 햇살은 따갑지만 바람은 산들산들, 산은 첩첩이 굽이굽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03 억새의 은빛 물결은 9월 말에 본격 시즌이 시작되어 10월 중순경에 절정을 이룬다.

일반적 코스이다. 오늘은 억새 평원을 제대로 만끽하기로 작심, 남쪽 영축산부터 올라 북으로 신불재를 거쳐 신불산을 넘고 간월재까지 가서 산하기로 한다.

### 영축산-신불재-신불산으로 이어지는 광활한 억새 평원

아직 여름의 기운이 남아 있는 초가을 이른 아침, 양산 하북면 축서암에서 산행을 시작해 영축산에 올랐다. 해발 1,081m. 영축산부터 벌써 조망이 환상이다. 신불산이 형제봉인 듯 마주하고 있고, 그 사이 약 200만㎡ 드넓은 구릉에 펼쳐지는 억새의 향연! 여기가 바로 신불평원이다. 이곳의 억새는 키가 크지 않아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초원인 듯, 여기가 우리나라인가 싶은 아국적

풍광에 잠시 넋을 잃게 된다. 자,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영축산 정상의 바위를 내려서니 신불평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타나고, 기다렸다는 듯 억새들이 춤을 추며 맞이한다. 억새의 향연이 시작된 것이다. 영축산에서 신불산까지 약 3km.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이 평원은 영남알프스에서도 최고의 경관으로 꼽는다. 게다가 억새 사이에 잡초가 거의 없어 그야말로 순수한 억새의 물결을 만끽할 수 있다. 억새는 9월 말에 본격 시즌이 시작되어 10월 중순경에 출렁이는 은빛 물결이 절정을 이룬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달린다. 해마다 가을이면 수많은 낭만 산객들이 찾는 이곳.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햇살은 따갑지만 바람은 산들산들, 이런 상쾌함이 얼마만인가. 무수한 억새꽃들이 바람 따라 누웠다 일어섰다 할 때마다 햇살은 부서져 천지가 황금빛으로 물든다. 저 앞에 하늘억새길을 표표히 걸어가는 어느 산행객. 대자연에 스며든 그 모습이 그대로 한 점의 시화(詩畵) 작품이다. 여기는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사색과 힐링의 길이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평원에는 신라 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보이는 단조성(丹鳥城) 터가 남아있다. 무려 신라 시대의 성이라니! 그 풍상의 세월이 얼마나 말인가. 아니나 다를까, 길가에 안내판이 서 있다.

### 억새나라 신불평원 단조성

신불산(神佛山)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이다. 칼을 심어 둔 도산검수(刀山劍水)와 열두 험로, 가을 천리 신불평원은 천하비경이다. 50만평의 넓은 신불평원은 가을이면 억새나라가 된다. 억새는 춤추고, 바람은 떠밀고, 구름이 쫓는다.

단조성(丹鳥城)은 하늘이 감춘 땅이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이라는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른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단조성을 지키는 보초병은 살기 위해 죽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억새 소총수이다. 아무리 짓밟고, 베고, 자르고, 뽑고, 태워도 다시 돌아나는 억새는 우리 민초들의 모습이다.....(이하 생략)

04 영축산에서 신불산까지 약 3km.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이 평원은 영남알프스에서도 최고의 경관으로 꼽는다.

### 억새나라 신불평원 단조성 안내문을 보니

아니, 이건 안내문이 아니라 한 편의 서사시가 아닌가? 영남알프스는 안내판 하나도 예사롭지 않구나. 등산로에 무심히 서 있는 안내문조차 이토록 시정(詩情)에 넘치다니. 이런 글귀 하나로 산행은 단순 운동이 아닌 인문학적 여정이 된다. 작은 봉우리를 넘어 나무 계단을 쭉 내려가니 마침내 신불재다. 신불재는 동편 울주군 삼남읍과 서편 양산시 원동면을 잇는 고갯마루로, 신불산-영축산을 연계 탐방한다면 꼭 거쳐게 되는 사거리 같은 평지다. 원래 이 일대는 화전민이 불을 놓아 민둥산이 되었으나, 울주군에서 억새군락지를 조성한 후로 전국 최대의 억새 평원이 되었다고 한다. 신불재에 설치된 널찍한 데크에서 잠시 쉬면서 경치를 본다. 걸어 온 영축산, 가야 할 신불산, 그 양쪽으로 펼쳐진 억새들의 군무가 황홀하다. 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육신은 사라지고 언젠가 저 무명의 억새와 하나가 되어 함께 흔들거리지 않겠는가. 부질없는 상념을 끊고 계속해 신불산을

신불산의 억새 장관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5

05

걸어 온 영축산, 가야 할  
신불산, 그 너머 간월재.  
양쪽에 펼쳐진 억새들의  
군무가 황홀하다

06

중간 중간 나무 데크가  
마련되어 있어 장쾌한  
풍광을 즐기기가 좋다.

오른다. 0.7km에 불과한 구간이지만 한낮의 띄  
약볕에 오름길이 결코 만만치는 않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 역새 대군을 거느리고 멀리 동해 바다까지 호령하는 신불산

드디어, 신불산 정상! 360° 서라운드로 펼쳐지는  
장쾌한 풍광에 가슴이 뻥 뚫린다. 동으로 울산 시  
내는 물론 겹겹이 산그리메가 이어지고, 멀리 동  
해 바다까지 손에 잡힐 듯하다. 여기서 일출을 본  
다면 그 또한 장관이겠다. 남으로 영축산 너머 함  
박등-죽바우등-시살등으로 쪽 뻗어가는 바위 능  
선도 한 폭의 그림이다. 서쪽으로는 재약산, 천황  
산 등 영남알프스 산들이 포진해 있고, 북으로는  
간월산이 지척에 있다. 그 모두를 두루 조망하는  
신불산. 수억만 역새 대군을 거느린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기세!

신불산의 하늘은 콘크리트 빌딩 사이로 슬쩍슬쩍  
비굴하게 얼굴 내미는 그런 하늘이 아니다. 세상  
을 아우르는 당당한 하늘. 그렇지, 그래야지. 이  
런 하늘이 보고 싶었다. 푸르다 못해 시퍼런 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은 하늘을 까마귀들이 소리  
내며 날고, 순간순간 몸을 가누기 힘든 돌풍이 몰  
아친다. 산에 올라 보면 알게 된다. 우리가 산의  
민족임을. 5천만이 모두 산 속에 살고 있음을. 보  
라. 평지가 거의 없지 않은가? 국창지대라고 해보  
야, 건물 가득한 도시라고 해봐야 실은 산과 산 사  
이에 생겨난 작은 틈새일 뿐, 첩첩이 굽이굽이 산  
은 끝도 없이 펼쳐진다.

신불평원을 거쳐 신불산 정상에서 머릿속 묵은 때  
를 시원하게 털어냈다. 이제 간월재로 내려간다.  
1.5km 거리. 간월재 역시 역새 군락지로 유명한  
곳이다. 아니, 탐방객 숫자로 따지면 신불산보다  
도 훨씬 많을 것이다. 쉬면서 요기도 할 수 있는  
간월재휴게소(10:00~16:30 운영)가 있고, 배내  
2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 오르는 길이 완만  
하여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대피소가 있어 산  
행 중 긴급 상황 시 이용할 수도 있다.

영남알프스.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또 오면 좋으  
련만. 역새처럼 일렁이는 소망을 품고 늘 그렇듯  
아쉬운 산행을 마무리한다. ☺



6



### 주차하기 좋은 신불산자연휴양림

신불산자연휴양림은 매표소 옆에 주차공간이  
있고, 길을 따라 다리를 건너면 제1~6주차장이  
있다. 주차공간은 제법 많은 편이나 성수기에는  
만차가 될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으니 주말  
등에는 이른 시간에 찾는 것이 좋다.

**₩ 입장료** 어른 1,000원

**🚗 주차료** 3,000원

**📍 주 소**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청수골길 175

**☎ 문 의** 052-254-2124



###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 이벤트

대한민국 100대 명산 및 한국 관광 100선에 지정된 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를 모두 등정하면 5개 지자체(울주군, 경주, 밀양, 양산, 청도)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 영남알프스 완등신청

**참여방법** [www.ulju.ulsan.kr/tour](http://www.ulju.ulsan.kr/tour) 내  
'영남알프스 완등신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문 의** 052-204-0335



# 지구온난화로 단풍이 희미해지고 있다?

가을단풍, 그것이 알고 싶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되면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온 산하를  
울긋불긋 물들이는 단풍이다. 올가을 선명하고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고 싶다면 첫 단풍이 드는 시기와 절정이 되는 때를 미리  
예측해보기로 하자. 이외에도 기온과 강수량, 지구온난화가 단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도움말 국립산림과학원



**Q** 단풍은 산꼭대기부터 든다?

**A** 대체로 맞다.

단풍은 가을에 나뭇잎의 빛깔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저기온이 5℃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첫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일교차가 클수록 빛깔이 더 곱다. 단풍이 드는 것은 기온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산꼭대기부터 시작해서 계곡으로 내려오는 것을 일반적으로 본다. 다만 나무의 종류에 따라, 혹은 햇빛이 드는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보통은 산의 20% 정도가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이라 이르고 80% 이상 물들었을 때를 절정으로 본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첫 단풍 시기는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즈음이다.



**Q** 수종이 같으면 단풍 색깔이 완전히 똑같다?

**A** 오해

초록잎이 단풍으로 물드는 이유는 식물의 잎이 가지고 있는 색소 때문이다. 따뜻하고 햇살이 좋은 계절에는 활발한 광합성으로 녹색 잎을 보게 되지만 기온이 낮아지는 가을에는 잎으로의 수분 공급이 차단되면서 엽록소가 파괴되어 안토시아닌의 붉은 색소, 카로틴 및 크산토필의 노란 색소, 탄닌의 갈색 색소 등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단풍의 정도와 색소는 잎의 세포에 들어 있는 색소의 종류와 양, 날씨의 영향을 받는데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가용성 탄수화물의 양에 차이가 있어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색상을 만들 수는 없다.



**Q** 비가 많이 오면 단풍이 곱다?

**A** 오해

해마다 가을이 되면 행락객들은 고운 단풍을 기대한다. 모든 해의 단풍이 선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고운 단풍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날씨 조건이 필요할까? 먼저 일교차. 일교차는 단풍의 빛깔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상요소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면 클수록 단풍의 색깔은 더욱 고와진다. 그늘보다는 햇빛이 많이 비치는 곳에 있는 나무가 더욱 고운 단풍을 선보인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강수량이다. 강수량은 적을수록 단풍이 고와질 확률이 높는데 비가 적게 오면 수분 흡수가 줄어 엽록소의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비가 많았던 여름을 지내고 이제 가을. 지금부터라도 적당히 건조한 날씨로 선명한 단풍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Q** 지구온난화로 단풍 색깔이 희미해지고 있다?

**A** 맞다.

최근 10년 사이 첫 단풍 시기는 최소 4~7일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다. 그마저도 단풍 색깔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단풍은 필요한 수분과 햇빛이 줄어드는 가을, 나무가 광합성을 포기하면서 시작된다.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나뭇잎에 들어있는 각 색소들이 세포 내 당들과 결합해 고유의 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미세먼지, 강수량 증가 등의 기상이변은 단풍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일조량이 감소하면 당의 저장량이 부족해져 단풍 색깔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다. 선명하고 또렷한 단풍을 보기 위해서라도 생활 속 탄소 저감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야겠다.





## 당신의 일상에 나무가 필요한 순간

나무, 예술이 되다\_ 세레나아트

빅데이터의 분석을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림에 몰두하는 순간 힐링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림을 완성하면서 느끼는 성취감도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덩달아 유튜브에는 그림 관련 채널이 늘었는데 세레나아트 채널도 그중 하나다. 최근 산림청과 협업하여 '우드 코스터 드로잉 art 키트(Feat. 물푸레나무)'를 준비하고 있다는 세레나아트의 그림 세계를 소개해본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세레나아트

### 그림을 그리는 이유

세레나아트 채널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그녀의 그림은 완성된 후에도 그렇지만 그려지는 순간까지 모두 동화 같다.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영상의 그림 제목도 '지구를 찾는 우주인', '구름을 그리는 4가지 방법', '소년의 가장 친한 친구, 마녀'처럼 편안하고 포근하다. 2019년 4월 활동을 시작해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2020년 2월,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최근 구독자 수 340만 명까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레나아트의 인기 비결은 바로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다. 편안하고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그림 말이다.

"제가 처음 영상 찍은 게 2019년 4월이라서 코로나 시국이 시작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어요. 예전부터 취미로 그림을 그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아직도 그림 말고는 취미가 없어서 촬영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저 스스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편안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보시는 분들에게도 제 기분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세레나아트가 밝히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다.



art\_serena\_





## 이토록 쉽고 매력적인 아크릴화

세레나아트 영상을 만나보자. 그녀는 캔버스, 우드 코스터, 돌멩이, 투명 아크릴 판 등 다양한 재료 위에 아크릴 물감을 칠해 그림을 그린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최소한의 밑그림이 그려진 판 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일이다. 그 후에는 아크릴 물감을 점처럼 똑똑 찍어 올린다. 여기까지 보면 도무지 어떤 그림이 탄생할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 이어 붓으로 물감을 펴 바르는 과정이 뒤따른다. 신기하게도 똑똑 올려진 물감을 펴 바르기만 하는데 판 위에서 그림이 서서히 나타난다. 몇 번의 붓질이면 완벽한 그림 하나가 똑딱. 보여주는 사람이 편안해서인지 따라 하거나 하면 누구나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아크릴화의 매력이에요. 아크릴화는 빨리 마르고 수정이 쉬워서 초보자들이 쓰시기에 좋죠. 물감을 듬뿍 짜서 팔레트 나이프로 쓱쓱 칠할 때 가장 매력적이에요.” 겸손한 답변이다.

물론 판에 점을 찍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아크릴화의 작업은 아니다. 처음 그녀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추상화를 캔버스에 그리는 채널들이 많았다. 차별화를 시도하고 싶은 마음에 자연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고 물감으로 점을 찍어 그리는 그림도 시작했다. 컨셉에 맞게 ASMR 요소도 넣고, 음악도 선곡해 넣었다. 마스킹 테이프를 쓰는 과정 또한 더 좋은 영상을 찍고자 그녀가 스스로 고안해 낸 부분이다. 영상을 보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고자 시도한 아이디어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은 결과물인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그림들이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라면 그것은 또 아니다. 세레나아트조차도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는 무슨 그림이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 결과물을 생각하고 그릴 때도 있지만 물감을 캔버스에 찍는 순간부터 뭘 그릴까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단 그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쓱쓱. 그렇게 탄생한 그림은 우주인도 되고, 동물도 되고, 마녀도 되고, 구름도 되어 마음에 포근하게 와 안긴다.

###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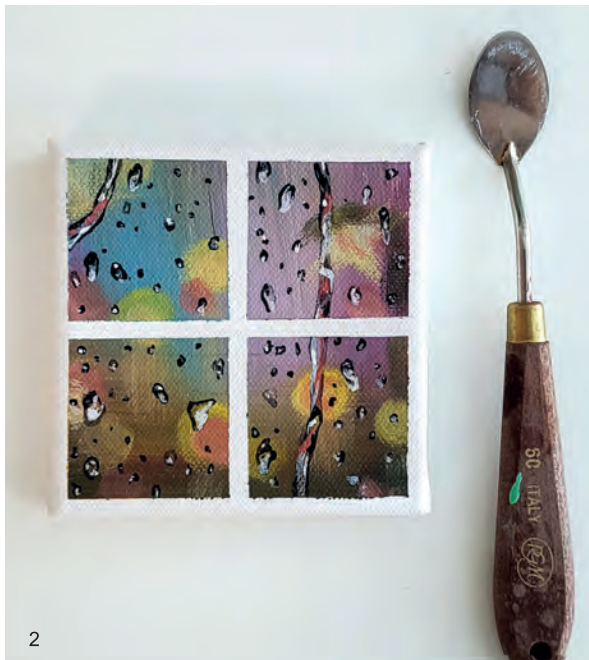
빨리 마르고 수정이 쉬워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아크릴화. 세레나아트의 영상을 보면 누구나 따라 그리기 쉽다.

### 03, 04

나무의 나이테가 그대로 비쳐 보이는 우드 코스터 그림. 나무에 그림을 그리면 아기자기하고 포근한 느낌이 든다.



1



2



3



4



## 나무가 예술이 되는 일상의 경험, 산림청 협업 드로잉 키트

이처럼 편안한 그림 그리기를 즐기던 세레나아트 가 2022년 가을에는 산림청과 협업하여 ‘우드 코스터 드로잉 art 키트 (Feat. 물푸레나무)’를 만들었다. 물푸레나무와 빨주노초파남보 알록달록 물감의 합작으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물푸레나무 조각 위에 감각과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다 보면 마침내, 나무와는 더 가까워지고 일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간단한 재료로 쉽게 풍경을 그려보도록 하는 기획이에요. 산과 나무의 풍경, 구름과 무지개, 오로라 등 최대한 다양하게 진행해 볼 거예요. 준비된 우드 코스터는 물푸레나무로 제작되었는데요. 단단하고 촉촉해서 그림 그리기에 안성맞춤이에요. 나무판은 동그랗고 귀여운 느낌이라 그림도 아기자기하고 포근한 느낌이 되겠죠? 나무 위에 그리면 나무의 나이테가 그대로 비치거든요. 그게 그림 전체에 따뜻한 느낌을 줄 거예요.” 계획을 말하는 작가가 더 신나 보인다.

그녀와 함께 그려갈 우드 아트는 또 어떤 힐링을 선사해줄까?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물푸레나무 조각 위에 동화 같은 그림을 그릴 시간이 무척이나 기다려진다. 숲

그림에 몰두하는 순간 힐링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림을 완성하면서  
느끼는 성취감도 크다.

### 산림청과 세레나아트가 함께 준비하는

#### 우드 코스터 드로잉 art 키트(Feat. 물푸레나무)

물푸레나무와 빨주노초파남보 알록달록 물감의 합작으로 완성되는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예술 작품!

**구성품** 물푸레나무 라운드 우드코스터, 아크릴 물감, 붓 2종 및 나이프 세트, 마스킹 테이프

\* 우드 코스터 드로잉 art 키트 (Feat. 물푸레나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월 말~10월 초 산림청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

산림청 유튜브  
바로가기





# 바람길 따라 걷는 오후

## 인천 수인선 바람길숲

한때 '꼬마열차'라 불리던 협궤열차가 달리던 길.  
2021년 이 길에 바람이 지나는 길, 바람길숲이 생겼다.  
선형으로 길게 들어선 이 길은 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인정받아  
'2021년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고의 도시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초가을, 바람의 온도가  
달라진 어느 날, 도심 트래킹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인천 수인선 바람길숲을 걸어 보았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인천 미추홀구

### 꼬마열차길에서 도시숲 바람길로

1937년 개통되어 인천 시민의 추억과 애환을 싣고 달렸던 협궤열차는 1995년을 끝으로 더는 달리지 않게 되었다. 방치되었던 폐선로는 2021년 인천 수인선 바람길숲으로 다시 태어났다. 인천 송의역에서 인하대역까지를 잇는 1.5km의 길이다. 바람길숲이 준공되자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시숲을 찾았다. 도심에서 푸른 나무도 볼 수 있고 협궤열차 모형, 간이역, 폐선로를 비롯한 많은 조형물들이 걷는 재미를 더했기 때문이다.

한나절 짧은 여행을 한다 치고 수인선 바람길숲을 찾았다. 송의역 1번 출구로 나오니 바로 숲이다. 바람이 다니는 길이라더니 여기 저기 팔랑이는 바람개비들이 정겹다. 중간중간 나오는 간이역이나 폐선로는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을 불러왔다. 도시와 도시를 길게 잇는 선형 도시숲, 양옆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이색적이다. 인하대역 쪽으로 다가가자 도시생태숲길이 펼쳐진다. 하늘 바람길, 물의 정원, 단풍나무길 각각의 명찰을 매달고서 다양한 나무들이 서 있다. 이곳에 단풍이 진하게 물들면 또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청명한 바람을 안으며 걸어가는 길, 모처럼 얼굴을 드러낸 푸른 하늘이 따라 걷고 있었다. ☀





빨갭게 물들어 나무에 매달린 단감. 이만큼 가을날의 정취를 잘 표현해주는 과일이 있을까?

단감은 맛도 좋거니와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제철 과일이기도 하다.

입이 심심한 가을날, 그냥 먹어도 좋지만 색다르게도 맛볼 수 있는 이색 디저트 레시피로 단감을 재발견해보자.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Studio KENN



## 가을이 익어갈 즈음 단감의 재발견

단감 푸딩 & 단감 양배추 스무디

가을의 대표 과일, 단감 철이 시작되었다. 이맘때 많이 먹는 감은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굴의 2배나 들어있고 비타민 A도 넉넉하게 들어있는 영양식품이다. 때문에 감기 예방과 면역력 증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방에서는 심폐기능을 윤택하게 하고 갈증을 멎게 하며 주독(酒毒), 열독(熱毒)을 풀어주는 데 효험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다만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 있는데 바로 바나나와 게장이다. 본초강목에서는 '게를 감과 함께 먹으면 설사병에 걸린다'고 전하고 있다.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인데 함께 먹었을 경우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좋은 단감을 한 번 골라볼까? 단감은 껍질에 윤기가 흐르고 탄력이 있으며 꼭지가 황색으로 튀어나온 것일수록 맛있다. 꼭지를 통해 숨을 쉬어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과육이 쉽게 물러진다. 오래 보관하여 먹고 싶다면 비닐봉지에 적당량을 넣어 밀봉한 상태로 0°C 정도의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생과로 즐겨도 좋지만 샐러드나 푸딩, 슬러시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는 단감. 올가을 단감으로 풍성한 디저트 타임을 즐겨보도록 하자.



# 단감 푸딩

단감 100g(껍질과 씨를 제외한 분량), 우유 50ml, 설탕 5g  
(푸딩 2개 분량)

## 만드는 법

- ① 단감을 깨끗이 씻은 후 두껍을 잘라내고 씨와 속을 파낸다.
- ② 그릇으로 사용할 단감의 외피는 깨끗한 곳에 놓아둔다.
- ③ 씨는 버리고 파낸 속과 분량의 우유, 설탕을 그라인더로 갈아준다.
- ④ 단감 외피에 내용물을 따라 넣고 냉장고에 넣어 3시간 동안 굳힌다.
- ⑤ 굳은 푸딩 위에 견과류나 건포도 등을 올려 장식하면 완성.



단감 푸딩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단감 양배추 스무디

단감 2개, 양배추 잎 1장, 물 1컵 반(300ml), 꿀 1큰술(기호에 따라 가감),  
얼음 적당량 (단감 양배추 스무디 2컵 분량)

## 만드는 법

- ① 단감은 껍질을 벗겨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냉동시킨다.  
냉동과일을 사용하면 스무디 식감을 쉽게 재현할 수 있다.
- ② 양배추를 적당히 썰어 준비한다.
- ③ 물과 함께 다 같이 그라인더로 갈아준다.
- ④ 컵에 넣고 기호에 맞춰 꿀을 넣어준다.
- ⑤ 얼음까지 띄우면 몸에 좋고 달콤한 단감 양배추 스무디 완성.



단감 양배추 스무디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16개의 페트병이 가방이 되는 기적

의식있는 소비를 제안하는 ‘미사이클’ 브랜드, 플리츠마마

전세계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플라스틱 페트병은 어림잡아 2,000억개 정도다. 그중 재활용되는 것은 겨우 20% 남짓. 나머지 페트병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지만 완전히 처리할 수 없어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 때문에 한 번 태어난 플라스틱은 어떻게든 다른 용도를 찾아 재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기업들이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100% 재활용만을 이용해서 물건을 재생산해내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페트병에서 뽑아낸 재활용 원사 100%로 가방과 옷을 만드는 기업, 플리츠마마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사진 플리츠마마

### 아름다운 선순환, 페트병에 주목

코로나 시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사용은 건잡을 수 없이 늘어가고 있다. 감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찾고 있고 비대면 쇼핑이 대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배달 음식과 온라인 쇼핑은 필연적으로 많은 쓰레기를 양산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구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 의식있는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편함과 위생 때문에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찾아낸 정책이 플라스틱 재생용품 사업이다. 플라스틱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 쓰는 것이니까. 실제로 2020년 12월부터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투명 페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분리 배출된 페페트병은 옷과 가방, 화장품 용기, 의약품 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 16개의 페페트병이 미사이클 가방으로

최근 자주 보이는 멋지고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니트백, 플리츠마마도 페트병 재활용 원사로 만든 것이다. 플리츠마마의 전 제품은 파트너사인 효성티앤시의 페페트병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리젠(regen) 섬유로 만들어진다. 섬유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한 번 살펴보자. 먼저 국내에서 수거된 페페트병 가운데 깨끗한 것을 골라낸다. 깨끗한 페트병을 더 깨끗하게 씻고 잘게 부숴 작은 플레이크 칩으로 만든다. 이후 플레이크칩에서 원사, 리사이클링 폴리에스터를 뽑아낸 후





이것으로 원단을 만든다. 이렇게 뽑아낸 원사, 리젠(regen)은 일반 섬유보다 발색이 우수하고 섬유 굵기가 일정해 플리츠마마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다. 16개의 페페트병이 1개의 미사이크 가방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이다. 2018년 브랜드를 내놓은 뒤로 플리츠마마는 지금까지 364만개의 페트병을 30만개의 플리츠마마 제품으로 재탄생시켰다. 자칫 땅에 묻히거나 소각되어 환경 오염으로 되돌아왔을 364만개의 플라스틱병이 가치있고 아름다운 가방으로 그 역할을 다시 찾은 것이다. 이런 철학에 공감해서일까? 아니면 제품 자체로의 경쟁력이 높아서였을까? 플리츠마마는 창업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 성장하며 삼성물산, 롯데면세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서울시, 제주도 등과 꾸준히 협업하는, 탄탄한 중견 스타트업이 되었다. “친환경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무거운 인상부터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품을 갖고 싶어하기보다 친환경 소비를 실천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제품은 친환경이라는 설명을 떼고 봐도 그 자체로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어요. 예뻐서 집어 들었는데 친환경 제품이라니 놀랍다, 라는 반응을 얻고 있는 거죠.” 플리츠마마 왕종미

대표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플리츠마마의 제품은 경쾌하며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플라스틱, 쓰지 않을 수 없다면 더 오래 쓰자**  
플리츠마마가 기울이는 ‘탄소발자국 줄이기’ 노력은 경영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먼저 플리츠마마에서는 조금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100% 국내산 페트병만을 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중국산을 쓰면 생산 비용은 줄일 수 있겠지만 원자재 이동 시 다량의 탄소를 배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플리츠마마의 기업 철학에 어긋난다. 실제로 플리츠마마는 제주에서 수거된 페트병을 제주 플리츠마마에서 <리젠 제주>로 출시하고 서울에서 수거된 페트병으로 <리젠 서울>을 출시하는 등 ‘폐자원의 현지화’를 실시하고 있다. 제품 생산 단계에서도 제품 하나하나 3D 프린팅 방식을 채택하여 버려지는 원단이 아예 없도록 만들었다. 포장을 최소화한 종이 패키지를 만들고 무상 수선 제도를 도입한 것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세심한 배려다. “저희 회사가 주장하는 브랜드 가치가 ‘의식있는 소비를 제안하는 미사이크 브랜드’ 거든요? 소비자, 즉 나(me)로부터 시작하는 아름다움(美) 선순환(cycle)이 그 의미예요. 플리츠마마는 미사이크 브랜드로서 소비자가 우리 제품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도록 돕고 싶어요. 궁극적으로 플리츠마마는 소비자들의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왕종미 대표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플리츠마마는 최근 꾸준한 지역 밀착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생활 속 환경 이슈와 더욱 친밀해지도록 돕고 있다. 지구는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최대한 손상 없이 사용하고 다음 세대에게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플라스틱을 아예 쓰지 않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버려진 플라스틱이 다른 역할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의 양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쓰지 않을 수 없다면 더 오래 쓰자. 플리츠마마에게서 배운 지속가능한 소비 습관이었다. ♻️

01  
페페트병에서 뽑아낸 원사, 리젠은 일반 섬유보다 발색이 우수하고 섬유 굵기가 일정해 아름다운 디자인을 잘 표현해낼 수 있다.

02, 03, 04, 05  
나(me)로부터 시작하는 아름다움(美) 선순환(cycle), 미사이크를 실천하고 있는 플리츠마마의 다양한 가방들.

한 번 태어난 플라스틱은 어떻게든 다른 용도를 찾아 재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쓰지 않을 수 없다면 더 오래 쓰자.  
모두가 실천해야 할 또 하나의 지속가능한 소비 습관이다.





# 우영우의 팽나무는 500살 수령의 산림청 보호수

산림청의 보호수 가치 지속사업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에 등장했던 팽나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이 나무가 있는 창원 북부리에는 매주 많은 사람들이 팽나무를 보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수령 500년 정도의 장수목으로 2015년 산림청의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입니다. 관심이 높아진 산림청 보호수 사업과 이들 보호수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 산림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매거진 숲 편집실







© 영가목 블로그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보호수 팽나무

주변이 탁 트인 마을 정상에 우뚝 서 있는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한눈에 보기에도 위용이 대단합니다. 수령이 자그마치 500년, 나무 높이는 16m, 둘레는 6.8m에 이릅니다. 이 팽나무는 드라마 속에서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천연기념물로 묘사되면서 도로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마을을 지켜내는 활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일까요? 드라마가 한창 반영될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지난 8월 30일, 문화재청은 창원 북부리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관보 게재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확정된다면 천연기념물 노거수로 지정된 팽나무는 예천 금남리 황목근과 고창 수동리 팽나무, 창원 북부리 팽나무 이렇게 세 그루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우영우의 팽나무는 2015년 산림청의 보호수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든든한 산림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무들이 산림청의 보호수가 되는 것일까요?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 13조에 따라 노목, 거목, 희귀목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들을 선별하여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 것

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보호수는 13,857그루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수종으로는 느티나무가 7,278그루로 가장 많아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는 울릉도 해안 절벽에 자리한 향나무로 1998년 지정 당시 2,000살 이상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영우에서 등장했던 팽나무도 전국에 1,340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많습니다. 팽나무는 대표적인 장수목 중 하나거든요.

이런 장수목들은 대체로 마을의 입구나 한가운에서 있으면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험하다 하여 새끼줄을 두르거나 오색 천을 걸어 놓고는 소원은 빌기도 했구요. 보호수 앞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잎사귀를 보면서 미래를 점치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만 그랬을까요? 요즘도 보호수는 아이들이 오르락내리락 노는 놀이터, 마을 회의가 열리는 소통의 장,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는 시원한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의 쉼터로 생활환경으로 사랑받고 있는 거죠. 산림청은 이런 나무들이 오래도록 우리 곁에 존재할 수 있도록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는 가치 지속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 0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산림청 보호수, 창원 북부리 팽나무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산림청의 보호수 가치 지속사업

보호수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보호수로 지정되면 읍·면·동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철저한 보호 관리에 들어갑니다. 보호수의 수세를 유지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호수의 소유자나 민간인, 산림보호담당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보호수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드라마의 흥행과 함께 보호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올해부터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호수의 건강과 생육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여 고령인 보호수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호수의 생육, 안전상태 진단은 관계자와 나무 의사들의 현장답사를 통한 일반진단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기본 검사만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2차 정밀진단이 이루어지는데 시료를 분석하여 진단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대상목별 가지치기와 외과수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호수의 생육, 안전상태 진단을 통해 현황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앞으로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산림청은 그뿐 아니라 보호수에 얹힌 옛이야기 등 인문 사회적 가치를 조사하여 국민이 산림문화자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런 나무들이 오래도록 우리 곁에 존재 할 수 있도록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는 가치 지속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2

### 02

2016년, 산림청이 보호수의 역사적 가치와 전설, 설화 등을 기록 정리하여 발간한 책,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2016년 발간한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는 보호수의 역사적 가치, 전설, 설화 등을 기록 정리한 책입니다. 문헌, 관리기관의 기록과 함께 직접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들은 전설과 설화를 이야기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전국의 보호수 중 100본을 우선 선정, 제작한 이 책을 보면 인간의 생애보다 몇 곱절 넘게 살아온 보호수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고 실감나게 접할 수 있습니다.

### 보호수에 대한 관심, 지속되어야

최근 우영우의 팽나무에는 관광객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팽나무 가는 길'이라는 표지판이 내걸릴 정도죠. 드라마로 인해 산림청의 보호수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기가 반짝 현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신령한 나무로,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자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온 공공재산으로 존재해온 보호수는 잠시 잠깐의 인기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들은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목입니다. 때문에 체계적인 진단, 생육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소실되기 전 이들의 인문 사회적 가치를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호수의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왔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체계적 관리 매뉴얼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높아진 보호수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김혜선  
부산시 사하구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 고향이라서인지 매거진 숲을 보면 늘 반갑습니다. 이번 호에 실린 글과 그림, 모두 즐겁게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숲의 내일, 무궁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벚꽃 축제에 비해 무궁화 축제는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령에서 열리는 무궁화 축제에도 참여하고 무궁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고 싶네요.

박지현  
대구시 달서구



매거진 숲을 볼 때마다 당장 이번 주말에 근처 가까운 산이라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월악산 기사가 좋았는데요, 산세가 험해 이름 가운데 '악'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진 속의 초록 가득한 월악산은 아름답게만 느껴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본 월악산이 당장 이곳으로 오르고 손짓하는 것 같았어요. 체력을 길러 올해가 가기 전 월악산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조향원  
경기도 의정부시



안 그래도 얼마 후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계곡으로 캠핑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차에 <어떤 질문> 칼럼에 소개된 '여름 계곡 사용설명서'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유익하게 잘 읽었네요. 기사는 계곡에서의 다양한 안전수칙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꼼꼼하게 숙지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고 추억 가득한 계곡 캠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독자 엽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 호 여섯 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박준석  
경기도 이천시



전혀 모르고 있던 용천동굴에 대해서 유명 연예인, 김민정씨가 소개해준 기사,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유명인사의 인생담과 함께 신비한 미지의 세계를 읽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자연을 소개하는 여행기를 계속해서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공유한다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만  
인천시 연수구



평소 불면증으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거진 숲>을 뒤적이다 숲소리 ASMR을 발견하고 이런저런 동영상 보면서 잠을 청하는 대신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등을 연결하여 그야말로 무념무상으로 소리에만 집중했는데 평소보다 수월하게 잠들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잠자는 습관에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인위적인 소리와 자극에 길들여져 있던 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성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난감의 사랑스러운 선순환'글을 잘 읽었습니다. 유아교육에서는 대물학습론이라 하여 아이들 조작활동이 두뇌를 좋게 만든다는 정설이 있는데요, 때문에 블록, 조립인형 등 플라스틱으로 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거진 숲>에서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셨네요. 폐기할 장난감을 업사이클링 기업, 코끼리공장에서 하듯 정크아트로 활용하면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 숲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두 달간 산림청에 있었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 2023년 산림청은 산림 가치증진과 재해대응 강화에 중점



산림청은 2023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증가하여 편성하였다. 이 예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전 예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에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예산 안에는 대형산불 방지 대응 역량 강화사업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킨 임업인 지원, 국민들이 숲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사업 등이 반영되었다.

## 9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충남 부여 김대중씨 선정



산림청은 9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밤 주산지인 충남 부여의 15ha 산지에서 가족과 함께 유기농 밤을 직접 생산, 판매하고 있는 청년 임업인, 김대중씨를 선정했다. 그가 재배한 밤은 밤 품목으로는 최초로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키운 먹거리에 부여하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K-FOREST FOOD'에 지정되기도 했다. 그는 MZ세대를 겨냥한 칼집밤과 샐러드밤도 개발했다.

## 산림청, 기업의 ESG 경영과 지역사회 공헌 적극 지원



2022년 9월, 광양시에서는 산림청, 광양시, 포스코,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이 함께 하는 '포스코 도이정원 숲'이 착공되었다. 이는 기업이 탄소흡수원 확충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투자한 대표적 사례이다. 산림청은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 산림전용 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저감사업,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탄소저감 활동에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산림청과 5개시도 손잡고 '동서트레일' 조성



산림청은 9월 21일, 한반도의 동서를 횡단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5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경상북도 울진군까지 총 849km에 걸쳐 조성되는 동서트레일은 태안의 안면소나무림과 울진의 금강소나무림을 연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신만을 위한 치유공간 아트테라피

아트테라피를 채색하여 그림을 완성해보세요.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_\_\_\_\_

\_\_\_\_\_

□ □ □ □ □

받는 사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대변인실 <매거진 숲> 편집부 앞

3 5 2 0 8

요금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10.13 ~ 9999.12.31

대전둔산우체국  
제40198호



마음을 활짝 열고 만나는 숲과 자연-  
일상 속에서 만나기 힘든 지극한 평온이 그곳에 있습니다.



#### 2022 9+10월호 독자의견

이름

1.이번 호를 읽고 난 소감을 적어주세요.

전화

이메일

2.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3.이번 호에서 가장 아쉬웠던 내용과 이유는?

• 매월 말일까지 엽서 또는 이메일 (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 숲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4.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임업직불제란?  
☎1588-3249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접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